

# ‘교종 으뜸 사찰’ 맥박 전하니 가르침 더욱 빛나네



## 28 교종수사찰 봉선사

‘봉호선왕지능(奉護先王之陵)’. 선왕의 능을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조선 세조의 아들인 예종이 이러한 뜻을 담아 ‘봉선사(奉先寺)’라는 현판을 하사한 일이 김수온(1410~1481)이 지은 <봉선사기>에 전한다고 하니, 이름이 절의 기능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능침(陵寢)사찰 가운데 하나인 봉선사는 조계종의 제25교구본사입니다. 경기도권의 또 다른 교구본사 역시 능침사찰의 기능을 가진 용주사로 제2교구본사입니다. 왕릉이 도읍에 인접한 것은 왕이 거둥 하는데 하루를 넘지 않는 거리에 능을 설치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왕릉을 수호하고자 하는 효심이 어린 능침사찰의 건립은 또 다른 역사적 아이러니를 제공합니다. 역불의 시대였던 조선이라는 공간에 적지 않은 왕릉 곁에 사찰을 세워 선왕의 왕생극락을 기원했으니 말입니다.

봉선사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존립했던 사찰이지만 그 역사적 기록이 미약합니다. 충남 서산 보원사에서 만든 법인국사 판문(板文)에 의해 지어졌다고 전하나,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일곱 번째 왕이었던 세조가 붕어(崩御)한 이듬해인 1469년 정희왕후가 지아버의 능침사찰로 봉선사를 크게 중창하면서 사격을 일신해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봉선사기>에 의하면 중창불사를 지휘한 이가 한명회 구치관 등이었다니 얼마나 큰 국가적 사업이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전각은 모두 89칸으로 불전과 승로(요사채)가 환히 빛을 발했고 대웅을 조성하고 각종 기물을 갖추어 어느 곳의 사찰도 이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고 하니 불사의 규모와 정희왕후의 정성이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활기를 얻은 봉선사는 100여 년이 지난 뒤에 불심 돈독한 또 다른 우바이(女信徒)에 의해 거듭됩니다.

교종수사찰(敎宗首寺刹). 봉선사의 진정한 이름은 바로 교종의 으뜸가는 도량이라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능침사찰이라는 기능성의 이름은 세속의 이름일 뿐입니다. 교종의 으뜸가는 도량이라는 이름이야말로 도량의 향연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진짜 이름인 것입니다. 명종 때는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한 시대입니다. 불심이 깊었고 대가 세기로 이름난 문정왕후와 불교의 흥망은 양주 회암사의 3회사 부도 앞에서 펼쳐지게 읽은 바 있습니다.

명종 6년(1551)년에 나라의 봉은사를 선종수사찰로 봉선사를 교종수사찰로 공포합니다. 수진(守眞) 스님이 판교종사도대사에 임명되어 전국의 교종사찰을 관장했고 1552년에는 승과고시인 교종시(敎宗試)가 봉선사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봉선사는 이를

알리는 석물을 진입로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큰 절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그 이미지는 불자들이 그 절을 찾아가는 마음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해인사를 가려는 불자는 반드시 장경각을 참배함으로 법보종찰의 의미를 새겨려 하고 통도사를 가는 불자는 보궁에서 절하고 기도함으로 불보종찰의 의미를 느끼려고 합니다. 교종수사찰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봉선사는 한글로 커다랗게 쓴 ‘큰법당’이라는 편액이 눈을 끌고 그 큰 법당 안에 <법화경>을 한자와 한글로 새긴 동판이 벽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경전의 최고봉인 <법화경>이 우리말로 새겨진 큰 법당이야말로 교종수사찰의 진면목입니다. 거기에 능엄학림에서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의 열기가 공부하는 도량의 기운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봉선사 부도밭은 진입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부도밭이라기보다는 비림(碑林)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도는 27기에 불과하고 비들이 길쭉길쭉하게 서서 겨울 하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부도밭에 모셔진 두 기의 부도는 윤허스님(1921~1980)과 윤경 스님의 자광지탑(德光之塔)입니다. 부도밭의 앞 길 건너편은 연못인데 해마다 연꽃이 환하게 피는 여름날 음악과 차와 연꽃향기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벌입니다. 그렇게 꾸민 축제가 되면 두 스님도 연꽃향기에 그윽해진 마음으로 후세 사람들의 응성공양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 정희왕후의 불심 거대한 능침사찰로 사격 일신시켜 월초 스님 신명명 이끄는 인재불사 발원, 윤허 스님은 역경 불사 다져 부도밭의 비들 모두 ‘추모비’란 이름으로 통일 ‘독특’



봉선사 경내 모습과 큰 법당.

부도밭의 맨 처음에는(연꽃우치원에서 들어갈 경우) ‘중창대시주 정문수행 이월파 정보현행’이라 적힌 키 작은 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옆에 또 하나의 재가자를 위한 비가 서 있으니, ‘춘원이광수기념비’입니다. 몸들의 위쪽에는 전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춘원이광수기념비’라 썼고 가운데는 위에서 아래로 단아한 한글로 새겼습니다. 신학문의 선구자였고 <원효대사> <꿈> 등의 불교소설과 불교사상이 흡인배인 시들을 썼던 춘원 이광수. 문학사에서 독립운동사에서 그를 빼놓을 수 없지만 친일의 행적 또한 끝없는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를 기념하는 비가 봉선사에 선 것은 그의 팔촌 아우였던 윤허 스님이 생사의 종착지를 알 수 없는 안타까움에 그의 가족들과 뜻을 모아 세운 것입니다. 주요한이 지은 간단한 비문의 마지막 대목을 읽어 봅니다. “이제 소식 모르는 입을 안타까이 그리는 아내 허영숙과 멀리 미국 땅에서 대학교수와 강사로 봉사하는 아들 영근 딸 정란 정화들이 이 터에 돌을 세워 어버이를 길이 사모하는 뜻을 바치고자 하며 삼가 후학 주요한이 글을 짓고 원곡 김기성이 글을 쓰나이다. 1975년 가을”

친척 아우와 아내, 자녀들의 애뜻한 마음이 단아한 비들에서 빛나고 있는데, 춘원의 아내는 비가 서던 그해 낙성된 비를 보지 못한 채 병환으로 미국 땅에서 별세하였다는 안타까운 내역도 기록되어 있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봉선사 일주문 옆에는 주인을 모르는 오래된 부도 한 기가 조용히 서 있다.

근현대에 봉선사를 대찰로 중창했던 월초 스님(1858~1940)의 부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양주 군운약산봉선사전주지월초대화상추모비’가 스님의 생애를 잔잔한 서체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인 윤허 스님이 글을 지어 1973년에 건립한 추모비입니다. 그리고 보니 봉선사 부도밭의 비들은 모두 ‘추모비’로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월초 스님의 행화는 봉선사의 오늘을 있게 한 불보살의 가피였습니다. 15세에 양주 부도암에서 환옹환진(幻翁煥眞) 장로에게 득도하고 법을 이은 월초 스님은 구족계를 받은 후 30대 초반까지 제방의 강원과 선원에서 연마하여 정혜를 고루 익혔습니다. 35세에 남한도총섭을 맡고 다음해에 북한도총섭을 맡으니 1894년 갑오경장으로 승군이 폐지되기 전 마지막 팔도도총섭이었습니다. 지금의 은평구 갈현동 수국사를 창건했고 동대문밖에 원흥사를 세웠던 월초 스님은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여 신학문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명진학원을 설립했으니 이것이 오늘날 동국대학교의 뿌리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불교계에 신학문의 근간을 세워주었고 봉선사의 사격일신에 빛나는 불사를 이룬 월초 스님의 비는 입적(1934) 후 40년 만(1973)에 문도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40년이 흐른 시간(2013년)에는 아름다운 부도가 조성되어 그 아름다운 역사를 기리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허 스님의 부도는 사방에 난간을 두른 모습이고 형체는 석종입니다. 부도의 몸통에는 ‘윤허당대종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의 몸통에는 ‘윤허당대종사추모비’라는 글씨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며 비들에 행적을 새겼는데 1981년 비를 세울 당시 동국대총섭이었던 영암기종 스님이 비

문을 찬했습니다. 운봉 금인석 선생의 서각은 아주 빼어난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으니 명문장에 명필이 어울려서 위대한 선지식의 생애를 더욱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아저 같 길어 멀다는 이 당면과제를 푸는데 선각자가 월초 스님과 그 유지를 이은 윤허 스님입니다. 스승인 월초 스님이 신식교육 전반에 대한 갈망을 실현했다면 윤허 스님은 역경분야에서 누구도 이루지 못할 대업을 이루었고 그 기초를 닦아 다시 후학인 월초 스님(현 봉선사 조심)에게 부족했습니다. 봉선사의 기둥은 바로 월초, 윤허, 월운으로 이어지는 굵고 튼튼하고 향기로운 맥입니다. 동국대 경원을 설립해 한글대장경 불사를 시작한 윤허 스님은 <불교사전>이라는 보배를 연마해 세상에 내놓았고 여러 경전들을 이치에 맞추어 번역해 역경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윤허 스님의 부도 앞에서, 오늘날 동매한 우리들이 한글로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저절로 숙연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윤허 스님이 회갑에 스스로 지었다는 시문을 읽습니다. 오늘은 경인년 정월 초사흘입니다.

흐르는 세월 무심히 보냈으니  
환갑을 맞은들 강할 것 없으리  
바다에 뜬 좁쌀신세 소동파가 개탄했고  
단명도 장수도 없던 말 왕우군이 의심했네  
동녘엔 먼동이 트려는데 봄은 이미 깊었으니  
가슴에 큰 뜻 품었건만 귀밑머리 희어졌네  
머리가 나그네길 외롭다 슬퍼말자  
아직은 건강하니 여생을 가꾸리라

임연태 (시인 · 본지는설위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 카이로프락틱

### 지도자 모집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 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기간** • 2급과정 (2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집약 완성

**장소** •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 하차후 왼쪽 출구, 신영프라자 301호

**입학일시** • 2010년 3월 15일 오후 1시 (공개강좌)

**상담** **라마불교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34-5호 신영프라자 301호  
본원 교학과 Tel : 031-502-5522 / 010-9005-4167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73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시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시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형, 관음시시,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2월 26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중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